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해설

[정답]

1.④ 2.⑤ 3.② 4.② 5.① 6.④ 7.② 8.⑤ 9.④ 10.③
 11.⑤ 12.① 13.④ 14.④ 15.① 16.⑤ 17.③ 18.④ 19.② 20.②
 21.① 22.④ 23.⑤ 24.③ 25.④ 26.⑤ 27.⑤ 28.② 29.② 30.①
 31.② 32.② 33.④ 34.④ 35.④ 36.② 37.① 38.③ 39.③ 40.③
 41.① 42.① 43.④ 44.⑤ 45.⑤ 46.② 47.③ 48.① 49.② 50.③

[1-5] 듣기

1. 이제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슬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헤이 온 와이’라는 헌책 마을을 아시나요? 이 마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리처드 부스’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부스는 대학 졸업 후 고향인 헤이 온 와이에 돌아와 작은 헌책방을 차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은 ‘시골에서 헌책방이 되겠느냐’며 만류도 하고 조롱도 했죠. 하지만 부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고서를 수집해 책방을 채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헤이 온 와이에 가면 모든 책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곳은 세계적인 명소가 됐죠.

책을 구하러 다니던 부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 부스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제 친구가 떠오릅니다. 학급 환경 미화 때의 일이에요. 학급 게시판에 붙일 학급 상징물을 만들기로 한 그 친구가 종이에다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멋진 그림은커녕 종이에 한 가지 색만 칠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뭐야?’ 하며 실망했던 저는, 다음날 깜짝 놀랐습니다. 게시판엔 수십 장의 종으로 이어진 큰 새가 하늘을 날고 있더군요. 순간 그 친구의 남다른 생각에 평소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 추론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제시된 대본에서 학생은 ‘헤이 온 와이’라는 헌책 마을을 세계적 명소로 만든 ‘리처드 부스’라는 인물을 언급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학급 환경 미화 때 남다른 생각으로 게시판에 붙일 학급 상징물을 만든 한 친구를 통해 평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 내용을 통해 ‘남의 잘못을 감싸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에 대한 교훈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리처드 부스는 대학 졸업 후 고향에 돌아와 작은 헌책방을 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마을을 세계적 명소로 만드는 큰일을 이루어냈다. ③ 리처드 부스를 조롱했던 고향 마을 사람들이나 종이에 한 가지 색만 칠하는 친구를 보

고 실망했던 화자는 모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볼 수 있다. ③, ⑤ 리처드 부스와 화자의 친구는 모두 남다른 생각으로 사물을 볼 줄 아는 열린 사고를 지니고 있었고, 목표를 향해 묵묵히 실천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2. 이번에는 드라마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갑 : 자, 여기가 양진이로구먼.

을 : 그래, 이제 양진까지 왔으니 고성까진 얼마 안 남았군. 잠시 쉬었다 가세. (지도 펼치는 소리) 음, 내일 해금강은 배를 타고 다녀올 수도 있겠군.

갑 : 자네, 고성에 한 번도 안 가 봤다면서 그걸 어찌 아나?

을 : 자, 여기 이 지도를 보게. 고성을 지나는 남강 물줄기가 상류에는 한 줄, 백천교 부근부터는 두 줄로 표시되어 있지? 보통 물줄기가 두 줄이면 배가 다닐 수 있고, 한 줄이면 배가 못 다닌다네.

갑 : 아하, 그렇군. 자네는 지도를 아주 잘 보네그러. 허허허.

을 : 과한 칭찬일세. 지도 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네. 자네도 몇 번 보면 잘 볼 수 있을 게야. 자, 다시 지도를 보게. 모래 일정은 신계사야.

갑 : 여기는 뱃길이 없어 걸어가야겠네.

을 : 그래도 고성에서 신계사까지는 30여 리 정도니까, 아침 먹고 출발하면 점심은 절에서 먹을 수 있을 게야.

갑 : 아니, 지도에 거리까지 표시되어 있단 말인가?

을 : 그렇다네. 고성 주변으로 비교적 곧게 뻗은 선들이 보이는가? 이걸 길을 나타낸 건데 보통 10리마다 방점이 표시되어 있지. 그런데 그 길이 험하면 걷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격이 좁고 반대로 걷기 쉬운 데면 간격이 넓다네. (사이) 자, 이제는 출발하자고. 해 지기 전에 고성 목전의 금성산 줄기를 넘어야지. 해가 지면 성문을 통과할 수 없어.

갑 : 고을 이름에 '성' 자가 들어가니 성이 있는 줄 아는 게로구먼.

을 : 그것도 그렇고, 지도를 보면 고성의 고을 이름이 두 겹으로 된 원 안에 있지? 이렇게 성이 있는 고을이라야 두 겹의 원으로 표시되니 아는 걸세.

갑 : 신통하군. 마지막 일정은 만폭동이지? 고성에서 만폭동에 이르는 길은 어떤지 내가 한번 봄세. 음, 거기까진

2. 추론적 사고(이어질 대화 내용 추리)

정답해설 :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은 현재 양진에서 고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며, 내일은 해금강, 모래는 신계사, 마지막 날은 만폭동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방송을 들을 때 지도를 보면서 해당되는 장소를 표시해 두면 도움이 된다.) 지도를 보면 고성에서 신계사까지는 거리가 비교적 짧고 강을 두 번만 건너면 되는 데 비해, 고성에서 만폭동까지는 거리도 멀고 강을 네 번 건너고 산을 하나 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만폭동 쪽 길이 신계사 쪽 길에 비해 훨씬 험하고 어려우므로 ‘신계사 쪽에 비하여 비교적 길이 편하겠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고성에서 만폭동 사이에 방점이 7~8개가 찍혀 있으므로 80여 리쯤 가야겠다는 판단은 옳다. ③ 지도상에서 강의 물줄기가 두 줄일 때 배가 다닐 수 있다고 했는데, 고성에서 만폭동 사이의 강은 모두 물줄기가 한 줄이므로 뱃길이 닿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지도에서 고을 이름이 두 겹으로 된 원 안에 있어야 성이 있는 고을이라고 했는데, 고성에서 만폭동 사이에는 그런 고을이 없다.

3.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부 곤충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동물은 피가 붉어 근육이나 살의 단면이 붉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류는 피가 붉은데도 살이 하얗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상 동물은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 신체 구조상 튼튼한 다리와 역센 근육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하지만 중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어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소 소모량도 크게 다릅니다. 근육 운동이 많은 육상 동물은 어류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소모하죠. 그런데 혈액을 통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만으로는, 근육 운동에 필요한 산소를 필요한 곳에 제때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육상 동물은 근육 속에 산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미오글로빈’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죠.

미오글로빈은 철을 포함하고 있어 산소와 결합하면 헤모글로빈처럼 붉은색을 띵니다. 육상 동물의 살이 붉게 보이는 것도 근육 속에 산소와 결합한 미오글로빈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어류는 육상 동물에 비해 근육의 사용이 적어, 미오글로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살이 하얗게 보이는 거죠. 물론 다랑어처럼 살이 붉게 보이는 어류도 있긴 합니다. 다랑어는 다른 어류에 비해 움직임이 왕성해 근육 속에 미오글로빈이 많기 때문이죠.

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강연에서 연사는 육상 동물의 경우 헤모글로빈만으로는 근육 운동에 필요한 산소를 제때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육 속에 산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미오글로빈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이 근육 속에서 미오글로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근육 속에 미오글로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③ 연사가 ‘왜 그럴까요?’라고 물은 후 ‘육상 동물은 중력을 이겨 내기 위해 역센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④ 연사는 어류의 경우 미오글로빈이 거의 없어서 살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⑤ 연사는 미오글로빈이 철을 포함하고 있어서 산소와 결합하면 붉은색을 띤다고 설명하였다.

4~5. 다음은 방송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한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으로 일정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남):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과장님, 의약품 공급 정보망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과장: 네, 저희 자치단체에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약국이나 제약 회사가 판매하고 남은 의약품을 저희 정보망에 기탁하면, 의약품이 필요한 사회 복지 시설이나 국내외 의료 봉사 단체에 무상으로 연결시켜 주는 사이버상의 네트워크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동안 이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의약품을 기탁하는 곳이나 받는 곳 모두 이점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이 있나요?

과장: 네. 약국이나 제약 회사에서는 처방전 변경 등으로 판매되지 않은 의약품들을 기탁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죠. 또 유통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들만을 기탁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동시에 기부금 관련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 시설이나 봉사 단체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양제나 아토피 치료제 같은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 초를 기준으로 40여 곳에서 기탁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25억 원 어치의 의약품이 전달되었습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음, 그런데 2004년부터 시작했다면 아직은 널리 확산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에 걸림돌이라도 있나요?

과장: 아, 네. 좀 있습니다. 재고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면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다시 재고가 쌓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전문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제공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군요. 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장: 아, 그건 아주 쉬워요. 기부하고 싶은 사업체나 받고 싶은 시설 및 단체는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간편해서 좋군요. 모쪼록 이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이 확대되어 국내외 의료 취약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비판적 사고(청취자 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대담을 들어보면 의약품 기탁자는 약국이나 제약 회사이고 사용자는 복지 시설이나 봉사 단체임을 알 수 있다. 기탁자 입장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재고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면 판매량이 감소하여 다시 재고가 쌓이는 점, 전문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제공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 늘어나는 것은 기탁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 따라서 방송 청취자 중에서 ‘기탁자’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약품을 기탁하는 곳이 약국이나 제약회사라고 했으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의약품 기탁을 받는 ‘봉사 단체 관계자’ 입장에서는 방송 이후 지원받고 싶은 단체가 늘어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의약품이 골고루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기탁 의약품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통 과정의 관리 문제와 사용하는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입장에서는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을 자신들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여자는 대담의 진행자로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군요. 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와 같이 상대방의 답변을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여자는 사업의 성과와 이점, 문제점, 참여 방법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을 뿐, 대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③ 여자는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다. ④ 여자는 상대방의 답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실제 사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⑤ 남자의 답변 중에 화제에서 벗어난 답변이 없으므로 여자가 상대방의 답변을 제지하는 장면은 없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적 사고를 하여 ‘글쓰기 체험’에 관한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메모’에는 아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신이 상상적으로 감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으나, ‘이끌어 낸 내용’에서는 ‘그 글을 읽게 될 사람들’의 요구를 예측한다고 하고 있어 제삼자들을 글의 독자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직접적인 연결성이 떨어지는 사고에 해당한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메모’의 ‘한 아이가 자기 방 안에 있다’는 문장은 ‘사람은 자신이 속한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에 대응한다. ② ‘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보았고’는 망원경이라는 매체를 통해 우주를 체험하는 것이므로 간접 경험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별의 모습을 직접 그려 본다’는 ‘글을 써 본다.’에 대응하고, ‘가 보고 싶은 별’은 ‘자신이 꿈꾸는 세계’에 대응한다. ⑤ ‘그림 속 우주의 한 행성에 발을 디딘 것처럼 즐거워한다.’는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보는 적극적이고 행복한 경험’에 대응한다.

7. 추론적 사고(자료의 해석과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료 (가)는 야생 동물의 교통 사고에 대한 보도 자료이고, (나)는 도로 길이가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대수가 증가하여 교통 혼잡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이다. (다)는 승용차든 트럭·버스든 저속 운행을 할 때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통계 자료이다. ②에서 (가)와 (다)는 연결 자체가 어색할 뿐만 아니라, 저속 운행을 하면 오염 물질이 줄어든다는 내용의 추론 역시 (나)의 자료에 부합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한다는 내용은 자료 (나)에서 추론될 수 있고, ‘동물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생태 통로’를 만든다는 내용은 자료 (가)에서 추론될 수 있다. ③ 교통 혼잡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은 자료 (나)에서 추론될 수 있고, 교통 혼잡이 오염 물질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은 자료 (다)에서 추론될 수 있다. ④ 자료 (나)의 통계가 2001년, 2003년, 2005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도로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고, 혼잡 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추론도 할 수 있다. ⑤ 자동차 배출 가스의 양이 승용차냐 트럭·버스냐, 저속이냐 고속이냐에 따라 달라짐을 자료 (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8. 비판적 사고(수정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소비자 권익 증진’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한 개요이므로, 그 개요의 결론 역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 ㉔에는 ‘소비자 의식 함양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으로 결론이 진술되어 있는데, ‘소비자 의식 함양’은 개요 III에서 소개된 세 가지 대책 중 하나에 불과하다. IV에 들어갈 내용은 앞에서

논의된 대책을 포괄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하므로, ⑤에서 제시된 수정 의견처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 촉구’로 포괄적으로 진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 실태는 ‘소비자 권익 침해의 실태’를 말한다. ‘소비자 상품 선택도의 변화’는 ㉠의 실태와 관련성이 떨어지고 완결성도 없는 내용이다. ② ‘II-1-나’는 ‘부실한 피해 보상’인데, ㉡은 ‘불합리한 피해 보상 절차 및 제도’이다. 하나는 실태이고 하나는 원인인데, 실태와 원인이 관련되어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요 생성이다. 중복되었으므로 삭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다. ③ <보기>의 ‘사업자 간 경쟁의 활성화’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자 간 경쟁의 규제’는 글의 주제에 역행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④ ‘소비자 보호 기관’과 ‘사업자 감독 기관’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구제 제도’로 포괄할 수 있다. ‘피해 실태 조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바꾸면 오히려 하위 항목을 포괄하지 못하게 된다.

9.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제시된 조건은 세 가지이다.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④이다. ④의 ‘가야금 곡조’, ‘소리 한 자락 ~ 즐겨 봄시다’에서 첫 번째 조건인 전통 문화를 언급하고 있다. ‘옥빛 소리’에서 청각적 심상인 ‘소리’를 ‘옥빛’의 색채어로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두 번째 조건인 ‘공감각적 표현’을 충족한 것이다. ‘-봄시다’의 어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조건인 ‘청유형 문장’의 조건에 부합한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전통문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② ‘공감각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③ ‘공감각적 표현’과 ‘청유형 문장’ 쓰이지 않았다. ⑤ ‘공감각적 표현’, ‘청유형 문장’이 쓰이지 않았다.

10. 추론적 창의적 사고(고쳐 쓰기 계획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에서 ‘생각해 보게 하는’이 쓰인 것은 독일 어느 성당의 오르간 악보(‘이것’)가 우리에게 (느림에 관하여) 생각해 보게 하는 사동의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라는 문장 구조를 그대로 둔 채, ③처럼 ‘생각해 보는’으로 고친다면 주어 ‘이것이’와 서술어 ‘생각해 보는’이 호응하지 않게 된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비추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에서 사용되고, ‘비치다’는 자동사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 문장 내에서 목적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비치기도’가 적절하다. ② ‘오르간 악보’에 대한 문장에서 ‘오르간 연주 장면’에 관한 문장으로 넘어가는 것도 어색하고, ‘거기에는(오르간 악보에는)’이라는 정보의 흐름에 ㉡이 끼어든 것도 어색하다. 따라서 ㉡을 삭제하자는 의견은 적절하다. ④ ㉣은 현재의 상황을 가정하는 문장이므로 ‘들었다면’은 어울리지 않다. ‘듣는다면’이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와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지 필요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에 ‘악보를’이라는 목적어를 넣자는 의견은 적절하다.

11. 어휘·어법 (어미 사용의 이해)

정답해설 : ⑤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어미 앞뒤 절의 주어와 같은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의 경우 어미 앞의 ‘빌리다’의 주어도 ‘동수’이고, 어미 뒤의 ‘예약을 하다’의 주어도 ‘동수’이다. ㄹ의 경우 어미 앞의 ‘만나다’의 주어도 ‘영희’이고, 어미 뒤의 ‘돌아가다’의 주어도 ‘영희’이다. ㄷ과 ㄹ의 두 문장은 어미 앞뒤의 주어와 모두 같은 문장들이다. ⑤의 논리에 따른다면, 어미 앞뒤의 주어와 같으면 ‘-러’를 선택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러’가 쓰인 ㄱ, ㄴ 두 문장 역시 어미 앞뒤의 주어와 같으므로 ⑤의 선택 기준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ㄴ에서 ‘-려고’, ‘-고자’가 쓰이지 않은 것은 ㄴ에 쓰인 문장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 ㄴ의 문장은 구어 상황의 청유형 문장이다. ② ㄷ에서 ‘-러’만 쓰이지 않고 있는데, 책을 빌릴 의도만 있고 빌리기 위한 ‘이동’의 의미 요소는 담겨 있지 않다. ㄱ의 문장처럼 이동의 의미 요소가 담긴 ‘빌리러 가다’가 ‘-러’의 자연스러운 문장임을 고려할 때, 개연성이 있는 탐구이다. ③ ㄱ은 평서문에서, ㄹ은 부정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미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ㄱ은 어미가 문장 중간에, ㄹ은 문장 끝부분에 어미가 쓰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어미의 선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

12. 어휘·어법 (어휘의 적절한 구사)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말과 말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선택 제약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말들의 결합 양상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의 취지이다. ‘결론’은 ‘내리다’, ‘짓다’와 결합하고, ‘하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소설의) ‘결말’은 ‘맺다’와 가장 잘 어울린다. ‘결정’은 ‘하다’, ‘내리다’ 등과 결합하지만, ‘맺다’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선택 제약을 가장 잘 고려한 어휘 선택은 ①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결정을 *맺다’는 어색한 결합이다. ③ ‘결론을 *맺다’는 어색한 결합이다. ④ ‘결론을 *하다’는 어색한 결합이다. ⑤ ‘결말을 *하다’는 어색한 결합이다.

[13-15] 기술,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

지문해설 :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의 개념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이란 영상의 밝기와 색상뿐 아니라 크기, 모양, 질감까지 변화시키는 기술로 화소의 밝기 값이나 색상 값에 변화를 주는 방법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디지털 영상 기술은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위·변조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주제]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의 개념과 그 실행 방법

13. 비판적 사고(글쓰기 전략의 파악)

정답해설 : 마지막 문단에서 디지털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가 일반화되면서 발생한 위·변조를 방지하는 것이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언급하고 있을 뿐,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이 갖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두 개의 그림을 활용하여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의 실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의 여러 가지 효과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14.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은 화소의 수치 값을 변화시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④는 화소 값에 변화를 주는 과정 없이 단순히 디지털 영상을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과는 관련이 없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친구들의 모습이 담긴 화면의 화소가 갖는 밝기 값과 색상 값을 복사하여 화면에 삽입하는 영상 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② 화소 값에 변화를 주어 색상과 질감을 좋게 만드는 영상 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③ 흐린 부분을 주위와 같은 수치 값으로 변화를 주어 선명도를 높이는 영상 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⑤ 변색된 부분의 색상 값을 조절하여 화면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영상 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15. 추론적 사고(원리 적용의 과정 이해)

정답해설 : 영상 처리 기술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한 후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시켜 보는 문제이다. ㉔의 위성 영상은 어둡고 화소 간의 밝기 값의 차이가 없어 선명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화소의 밝기 값을 높이고, 각 화소 간의 밝기 값의 차이를 부각시키면 화소 간의 변별력이 향상되어 선명도가 높아지게 된다. ①은 화소의 밝기 값이 높아지면서 각 화소 간의 밝기 값의 차이가 두드러지도록 영상을 처리했기 때문에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각 화소의 밝기 값과 화소 간의 밝기 값의 차이(변별도)가 모두 낮아지고 있어 이전보다 더 어둡고 선명도도 떨어지고 있다. ③, ④ 밝기 값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지만 화소 간의 밝기 값 차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선명도가 높아

졌다고 볼 수 없다. ⑤ 화소의 밝기 값과 화소 간의 밝기 값 차이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16-19] 인문, '영웅의 창조와 전승 과정'

지문해설 : 인간의 기억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안에서 형성되어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영웅이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에 따르면 영웅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글쓴이는 영웅의 탄생과 전승 과정을 살피는 것은 그 시대를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웅이 '민족'이라는 단위와 결합되어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애국이라는 덕목과 결부되며 국민의 단결을 이루어내는 매개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주제] 시대에 따라 달라져 온 영웅의 역사적 실체와 역할

16.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기 때문에 영웅의 탄생과 전승 과정을 살피면 시대를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거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영웅이 죽고 나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 속에서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역사가 과거의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후대에 체계화된 지적 구성물임을 알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대중을 역사를 이끄는 주체로 제시한 내용은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② 역사가 여러 시대를 거치며 다르게 기술되고 해석되어 왔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역사가 현재의 세계를 목적으로 진보해 온 과정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없다. ③ 이 글에서는 역사가 주체에 따라 다르게 서술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을 뿐, 역사의 과학적 지위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④ 역사가 우연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관련 있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7.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은 과거의 것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 따르면 기억은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역사 소설을 읽고 실재한 사실과 문학적 허구를 가려보는 것' 자체만으로는 기억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전승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효행의 선양을 위한 효자비 제정은 마을이라는 사회적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② 역사적 인물을 지폐에 도안으로 삼으면 그 인물에 대한 기억

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수 있게 된다. ④ 사회적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다. ⑤ 전쟁 박물관의 전시는 국난 극복의 역사를 사회적으로 기억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8. 추론적 사고(논지의 파악 및 적용)

정답해설 :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는 일이 그 시대를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첫째 문단의 내용으로부터 ㄱ이 논지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영웅이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어 구성원의 집단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 내용을 통해 ㄴ이 논지에 부합함을 알 수 있으며, 넷째 문단에서 영웅이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났다는 데서 ㄷ이 논지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이 글을 통해 시대의 욕망에 따라 영웅이 다르게 창조되고 전승되었음은 알 수 있으나, ‘영웅을 만들어 유포하는 체제가 좋은 체제가 아니다’는 입장은 이끌어낼 수 없다.

19. 어휘·어법(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⑥의 ‘화신(化身)’은 ‘어떤 추상적인 특질이 구체화 또는 유형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애국의 화신’은 애국이라는 특질이 구체화된 대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파란만장’은 곡절과 시련이 많음을 나타낸다. ③ ㉠은 탐구한다는 맥락적 의미를 지니므로 ‘근본까지 깊이 캐어 들어가 연구함’으로 그 의미가 파악된다. ④ ‘표리’는 ‘겉과 속’을 의미한다. ⑤ 뒤의 ‘과제’란 말이 있음을 고려하면 ㉡가 ‘가장 높은 위’라는 의미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20-23] 고전소설, 작자 미상, ‘박홍보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춘향전, 심청전, 별주부전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이다. 전체적으로 악한 놀부가 벌을 받고 착한 흥부가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형 소설이지만, 작품의 상당 부분은 착한 흥부가 형에게 박대 받고 가난에 시달린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고단한 흥부의 삶은 해학적으로 그려지고, 부유한 놀부의 삶은 풍자와 야유로 표현되어 대중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이 작품은 장면 장면으로 이어지는 희곡적 성격이 강한데, 이는 이 작품이 당초에 판소리의 각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쓰인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제시된 장면은 흥보가 환곡을 얻어 생활하는 장면, 매품을 팔러 가기 전 아이들에게 바라는 바를 묻는 장면 등이다.

[주제] 흥보와 흥보 가족의 가난한 생활과 해학

20.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담긴 소설에서 당대의 사회상을 추론해내는 문제이다. 흥보가 매품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말을 듣자 아이들은 벌 떼처럼 모여들어 각자 자신의 소원을 말한다. 아이들은 흥보에게 ‘풍안(안경)’, ‘송아지’, ‘양피 조끼, 장도 비단 꽃신’ 등을 사달라고 말한다. 이로 볼 때, 아이들이 풍안과 양피 조끼 등의 신문물이나 치장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남의 죄로 매’를 맞는 상황이 나오므로, 부자가 스스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회상은 이끌어내기 어렵다. ③ 흥보의 마누라는 나라의 곡식인 환곡미를 당장은 빌려 먹더라도 나중에 갚을 때 어떻게 갚겠느냐고 걱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 없이 관가에서 곡식을 빌렸을 것이라는 추론은 하기 어렵다. ④ 돈을 벌기 위해 매품을 파는 상황은 황금만능 풍조에 대한 반감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⑤ 흥보가 놀보 집에 다녀온 후 그야말로 다양한 품을 팔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품을 팔게 되는 상황은 흥보가 노동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21.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정답해설 : [A]에서는 자신의 볼기가 매를 맞고 돈을 버는 데라도 구실이 있다며, 자신이 떠올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볼기’의 구실을 열거하고 있다. 흥보가 떠올리는 장면이 다양하다 하겠으나, 이것을 ‘빠른 시선 이동’으로 보기 어렵다. 또, 흥보는 [A]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지, ‘긴장 조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하니, ~해 볼까’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③ ‘볼기’를 소재로 하여 해학적인 맛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④ ‘삼정승’, ‘양국대장’, ‘각읍 수령’ 등 자신이 도달하기 어려운 지위를 상상하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흥보 자신의 궁한 신세를 부각시키게 된다. 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2. 추론적 사고(인물의 심리 이해)

정답해설 : <보기>는 판소리계 소설 속 인물들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말하고 있고, 답지들도 그에 따라 인물의 심리를 복합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㉔의 경우에는 흥보 마누라가 ‘목숨’ 즉 운명 대로 살고 ‘남의 죄로 매 맞’는 일은 하지 말자는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편이 매 맞으러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드러나 있고, 어쩔 수 없다고 수용하는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시아자씨도 야속하다’에는 ‘시아주버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드러나 있고, ‘나의 설움’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가 드러나 있다. ② ‘속이 매워 못 듣겠네’에는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마음이, ‘장부의 허물이라’에

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다. ③ ‘몽둥이 서넛’ 맞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형님께로 떠넘기세’라 하여 형님께 의지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요런 몫쓸 일’이라 하여, 아버지가 매를 맞으러 간다는데 자신의 바람만을 늘어놓는 자식들에 대해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많이 사다 주마’라 하여 자식들의 바람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다.

22. 어휘·어법(관용적 표현)

정답해설 : 자식 한 놈이 ‘송아지’를 사달랬더니, 흥보는 자식이 살림에 보탬이 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자식을 칭찬하지만, 자식은 ‘송아지’를 불에 구워 먹겠다고 하여 흥보를 실망시킨다. ‘송아지’라는 대상에 대해서 흥보는 살림 밑천으로 보는 반면 자식은 식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자 성어는 동상이몽(同床異夢, 같은 침상 위에서 잠자면서 다른 꿈을 꿈)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같은 비용이 든다면 더 나은 것을 고르고 싶다는 뜻.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② 질문에 대하여 엉뚱한 답을 함. ③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서로를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김.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서로의 처지를 이해함. ④ 매우 분주함.

[24-27] 예술, ‘영화의 리얼리즘 미학에 관한 바쟁의 영화관’

지문해설 : 영화는 현실을 시간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연장이고, 현실의 숨은 의미를 드러내고 현실을 밀도 있게 그린다는 점에서 현실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이런 리얼리즘적 본질을 구현하는 영화가 심리적, 기술적, 미학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바쟁의 영화관이다. 바쟁은 형식주의적 기교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현실의 참모습을 변조하는 과도한 편집 기법보다는 사건의 공간적 단일성을 존중하는 기법을 지지한다. 그것이 현실적 사건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제] 영화의 리얼리즘 미학에 대한 바쟁의 영화관

24. 사실적 사고(내용 일치)

정답해설 : 바쟁은 형식주의적 기교가 현실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침해하여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되도록 영화에 과도한 편집을 가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이 사건의 공간적 단일성을 존중하고 현실적 사건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현실을 의도적으로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예술이라는 것은 바쟁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바쟁은 조형 예술의 역사가 ‘미라 콤플렉스’와 관련되어 변화해 왔

다고 생각한다. ② 회화보다 사진이 더 현실을 정확히 재현한 것이고, 영화는 사진의 기술적 객관성을 시간 속에서 완성한 것으로 본다. ④ 영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을 더욱 닮게 그려낼 수 있다. ⑤ 사진의 등장으로 회화는 복제의 욕망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율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25. 사실적 사고(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리얼리즘 영화가 지니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문제이다. 영화는 사진의 기술적 객관성을 시간 속에서 완성한 예술 장르로,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한 것이며, 현실과 최대한 닮은 모습을 그려낸다. 이는 곧 현실의 연장이고 현실적인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의 ‘현실의 참모습’은 현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넷과 그 의미가 다르다. ㉡, ㉢, ㉣, ㉤은 현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현실과 꼭 닮게 재현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답] ④

26.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정답해설 : 바쟁의 영화관에 동조하는 감독이 영화를 제작한다고 할 때, 그는 영화의 리얼리즘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영화를 제작하게 될 것이다. 이는 최대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할 것이고, 과도한 편집이나 현실에 대한 무리한 조작을 삼가게 될 것이다. 또 화면 속에 여러 층을 형성하여 모든 요소를 균등하게 드러냄으로써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점과 관련지어볼 때, ⑤의 화면 속 중심 요소에 주목하여 관객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바쟁의 영화관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리얼리즘 영화는 과도한 편집을 자제한다. ② 현실을 그대로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말이다. ③ 기교를 부리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리얼리즘 영화관이다. ④ 리얼리즘 영화 기법에서는 단일한 슷을 길게 촬영하는 롱 테이크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27. 어휘 어법(단어의 구성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는 파생어의 형성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파생어는 어근에 접미사를 덧붙여 만들기도 하고, 접미사 뒤에 어근을 이어서 만들기도 한다. ‘믿음’은 ‘믿다’의 ‘민-’이라는 동사 어근에 ‘-음’이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⑤의 ‘달리기’가 ‘달리다’라는 동사의 어근인 ‘달리-’ 뒤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기’를 덧붙여 만든 말이므로 ‘믿음’과 그 구성이 같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길다’라는 형용사의 어근 ‘길-’에 접미사 ‘-이’가 붙음. ② ‘기쁘다’라는 형용사의 어근 ‘기쁘-’에 명사형 접미사 ‘-ㅁ’이 붙음. ③ ‘털’이라는 명사에 접미사 ‘-보’가 붙음. ④ ‘오뚝하다’라는 형용사의 어근 ‘오뚝-’에 접미사 ‘-이’가 붙음

[28-33] 시가 복합(현대시 + 고전시가)

(가)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 단장'

작품해설 : 이 시는 박혁거세의 어머니 사소에 대한 고대 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작가가 창조적으로 변용한 작품으로, '꽃'으로 표현된 절대적, 초월적 세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의 화자인 사소는 노래, 말, 산돼지, 산새로 표현된 현실 세계의 경험에서 벗어나 초월적 세계에 도달하고 싶어한다. 그러한 열망이 '문 열어라 꽃아'에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초월적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

(나)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작품해설 이 시는 화자가 나무들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자는 어리고 나약한 나무들이 어둠과 비바람 속에서도 손을 잡고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먼 훗날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시련과 고통을 연대의 힘으로 이겨낸 나무들이 숲과 들판에 우뚝 설 것이란 낙관적 희망의 메시지는 나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주제]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낙관적 믿음

(다) 안조원, '만언사'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작가가 추자도로 유배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유배지인 추자도에 이르는 노정과 그 노정에서 느낀 바를 표현하고 있다. 유배지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이 사실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김진형의 '북천가'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유배가사이다.

[주제] 유배생활의 어려움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

28.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시적 화자가 꽃에게 말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자는 꽃에게 문을 열라고 말한다. (나) 역시 화자는 나무에게 말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작은 손, 흐느낌, 아프고 서러워' 등의 표현에서 의인화된 나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에서 낚시를 하던 화자는 낚시대 그림자에 놀라 날아가는 백구에게 내 마음을 왜 몰라 주냐 하며 가지 말라고 한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에서 산천을 '홍일'로, 만경창파를 '금빛'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다)는 가사의 4음보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④ (나)에서 어둠과 밝음의 대비를 통해 나무들의 시련과 활짝 피어나는 날에 대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⑤ '유장한 어조'란 '급하지 않고 느릿느릿한 여유를 보여주는 어조'를 말한다. (다)에서 화자는 한가롭게 낚시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29.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산새에 입맛을 잃었다고 했다.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은 꽃이요 꽃이 문을 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에, 현실의 대상으로 열거된 ‘노래, 말, 산돼지, 산새’는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다. (다)에서 화자는 낚시를 하고 있지만, 낚시를 하는 목적이 ‘은린옥척’을 잡고자 함이 아니라 마음을 얻고자 함이라 했다. 그렇기에 은린옥척 역시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가 머무는 장소는 꽃밭이다. ③ (가)에서 개벽은 화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이다. (다)의 성세 또한 화자의 간절한 바람이기에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④,⑤ (가)에서 물낮바닥에 얼굴이나 비치는 아이는 현재의 화자로 비유되어 있다. 즉, 화자는 초월적, 절대적 세계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꽃이 문을 여는), 현재의 화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요, 만족하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의 ‘그림자’는 낚싯대의 그림자일 뿐이요, 백구를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벗님’은 ‘백구’의 친구이기에 바로 화자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30. 추론적 사고(시상 전개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설의적 표현이란 의문의 형식을 취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나)에서 1행과 2행은 ‘얹으리’로 끝나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두렵다, 무섭다’의 의미이며, 이를 시작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다)에서도 중간 부분 이후에 ‘내 마음 모를소냐’, ‘하물며 너 잡으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어둠과 비바람의 계절을 이겨내고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는 계절을 맞이할 것이라는 내용에서 계절의 변화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다)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③ (나)에서 화자가 일관되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무들’이다. ④ (다)는 낚시를 하며 느끼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기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⑤ (나)와 (다) 모두 외부 세계 보다는 화자의 내면 세계가 중심이 되고 있다.

31. 비판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감상)

정답해설 : ‘원주’에 따르면 (가) 시는 집을 떠나기 전 사소가 한 독백이다. ‘노래, 말, 산돼지, 산새들’에 흥미를 잃었다는 것은 사소가 자신을 둘러싼 현실, 당시까지의 삶에 흥미를 잃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심리는 사소가 새로운 세계를 찾아 떠나게 된 심리적 배경과 원인의 구실을 한다. 아울러 ‘꽃’은 새로운 세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답]** ②

32. 추론적 사고(시적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나무들의 연대에 대한 강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믿음이다. 즉, 현재는 비록 ‘작은 손’으로 표

현되었듯이 나약한 존재들이고, 어둠과 비바람에 시련을 겪을 것이지만 이러한 고통을 이겨낸 뒤에는 꽃과 열매가 이들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③,④ 시련을 극복한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극복할 것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33. 추론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는 낚시를 하며 한가로움을 느끼던 화자가 사랑하는 이에 대한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끼는 내용이며, 글쓴이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배지에서 느끼는 적대자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평생의 굶던 입을 ~ 마음을 둘 데 없어’에서 화자의 외로움과 수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화자는 낚시를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③ 백구가 내 가슴을 쪼아 헤치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했다. ⑤ 화자는 흥중에 붉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성운을 갇겠다고 했다.

[34-37] 화행이론에서의 발화의 적절성 조건

지문해설 : 발화의 적절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화행 이론은 요청, 명령, 질문, 약속, 충고 등의 발화가 상황에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성 조건을 제공하는데, 이는 다시 예비조건, 진지성 조건, 기본 조건으로 나뉜다. 적절한 발화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제] 발화의 적절성 조건

34.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적절한 발화는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대화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발화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발화도 상황에 따라 적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④의 내용은 위 글에서 말하는 내용에 부합한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적절성 조건을 어긴다는 것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각 상황마다 위배되는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예비 조건이 다른 적절성 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적절성 조건은 모든 발화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⑤ 일부러 적절성 조건을 어김으로써 모종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늘 의사소통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35. 비판적 사고(서술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화행 이론에서 발화의 적절성 조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글은 딸의 생일 선물을 잊은 아빠의 이야기를 예로 들

면서 글을 시작한 후에 화행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발화의 적절성 판단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그리고 적절성 조건을 요청의 경우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것 외에 둘 이상의 조건을 어긴 발화까지 소개하면서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주고 있다. 글의 마지막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발화의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화행이론만으로는 발화와 상황의 관계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글에서 (라) 단락은 앞 단락을 뒷받침하는 단락이 아니라 앞 단락과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단락이다. 또 다른 경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답] ④

36.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의 상황을 이해한 후, 이 상황에서 예비 조건에 대한 태도가 다른 사람을 찾는 문제이다. <보기1>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보기2>에서 딸은 아빠가 그렇게 큰 곰 인형은 사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청자가 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아빠, 나도 사 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아빠가 누나에게 그런 곰 인형을 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그런 곰 인형을 사달라는 것이다. 즉 예비조건을 어기지 않은 요청이 된다. 엄마와 할머니가 구두를 언급하는 것도 곰 인형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할아버지가 다른 선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역시 곰 인형을 사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비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아들 밖에 없다. [답] ②

37.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 추리)

정답해설 : ㉠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을 한순간 미처 생각하여 내지 못했다’는 의미로 쓰였다. ‘중요한 약속을 잊다’, ‘제삿날인 것을 잊었다.’는 등의 경우에 쓰인다.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은 ‘수돗물 잠그고 나오는 것을 잊다’는 ①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④, ⑤ 일하거나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 또는 좋지 않은 지난 일을 마음속에 두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다. ③ 한 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 내지 못하다.

[38-40] 회곡

이강백, ‘파수꾼’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우화적 기법을 통해 권력의 위선적 실체를 통렬히 풍자하고 있다. 1970년대 안보 정책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 집단의 모습은 이리때라는 가상의 적이 오히려 체제 유지와 질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촌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진실을 폭로하고자 하나 촌장의 설득으로 결국 체제에 순응하고 마

는 ‘과수꾼 다’의 모습을 통해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용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진실을 향한 열망

38.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촌장은 편지를 가져와서 편지를 운반한 사람이 도중에 편지를 읽었으며, 사람들에게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떠벌리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 올 것이며, 어떤 사람은 도끼를 들고 올 것이라 했다. 이 내용은 촌장이 ‘과수꾼 다’를 설득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즉,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무대’의 개념은 현재 극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극중 시간의 흐름은 ‘과수꾼 나’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을 뿐 전환되지는 않는다. ② 과수꾼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에 공간적 배경은 망루 정도로 추리할 수 있다. ④ 전반부에서 ‘과수꾼 가’는 ‘과수꾼 나, 다’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또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촌장과 대립하고 있기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⑤ 이 작품의 중심 갈등은 ‘과수꾼 다’와 촌장과의 갈등이며 이것이 전체의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39. 비판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서사극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무대 위의 연극은 연극 일 뿐임을 강조하는 서사극은 관객에게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낮설게 하기’의 기법을 활용한다고 했다. 이러한 기법은 해설자가 촌장이 되어 등장할 때 이러한 모습을 관객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①,②,④,⑤의 내용들은 무대 위의 상황을 현실의 상황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며, 극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들이므로 서사극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답] ③

40. 추론적 사고(어휘 해석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과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망루 밖의 들판에는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 이리 떼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이 ‘팻말’ 때문에 아무도 들판에 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촌장과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팻말’을 적절히 활용한다. 즉, ‘팻말’ 뒤에 잘 익은 ‘딸기’를 그들만이 취하는 것이다. 결국 ‘팻말’은 명분 뒤에 숨겨진 ‘딸기’라는 실리를 취하게 만드는 촌장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답] ③

[41-43] 과학, ‘과거의 대기 성분과 기온 변화를 알 수 있는 남극 빙하’

지문해설 : 남극의 빙하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빙하에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이 포함되는 연유를 밝힌 후에, 빙하를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의 산소의 동위원소비를 이용해 과거 지구의 기온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극 빙하를 통해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농도를 알 수 있는 것은 클라트레이트 수화물과 관련이 깊다. 클라트레이트 수화물은 과거의 기체 성분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해 기온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은 산소 동위원소비가 기온 변화와 거의 정비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 과거 지구의 기후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 남극 빙하가 지닌 가치

41. 사실적 사고(표제와 부제의 파악)

정답해설 : 첫째 문단에서 남극의 빙하가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기온 변화에 관한 기초 자료를 생생하게 보존하고 있음을 말한 후, 둘째 문단에서는 남극 빙하를 통해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농도를 알 수 있는 연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문단에서는 기온 변화를 알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도 남극의 빙하가 지구의 기온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그 실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빙하 연구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 아니다. ④ 동위원소 연구의 현황을 다소나마 짐작할 수 있으나, ‘남극, 거대한 실험실’이나 ‘동위원소 연구의 현황’이란 말은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 ⑤ 자원의 보고로서 남극 빙하의 가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2. 추론적 사고(뒷받침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셋째 문단에서는 빙하를 구성하는 산소의 동위원소비를 이용해 과거 지구의 기온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남극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들의 산소 동위원소비의 증감은 일 년의 주기를 갖는다. 그리고 그 증감은 기온 변화와 거의 정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서 산소 동위원소의 증감의 주기성을 이용하면 빙하의 생성 연대와 그 당시의 기온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빙하의 오염 정도에 대한 언급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둘째 문단을 통해 빙하의 강도가 높을 것이란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나, 그 강도를 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결정구조와 산소의 동위원소비의 상관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산소 동위원소비를 통해 전체 부피를 알 수는 없다.

43.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둘째 문단을 보면 남극 빙하의 일정한 깊이에 이르면 하부의 눈이 얼음으로 변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이 얼음으로 변형되면 눈 입자들 사이에 있던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 산소 등의 공기가 얼음에 갇히게 되고, 상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클라트레이트 수화물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하부의 얼음 일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는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A가 화산재이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② 산소의 동위원소비는 기온의 변화와 거의 정비례한다. B 지점에서의 산소의 동위원소비가 C 지점보다 낮으므로 B 지점이 C 지점보다 기온이 낮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③ 남극의 표층에 쌓인 눈은 계속 내리는 눈에 덮이면서 점점 깊이 매몰되고 그에 따라 눈의 밀도도 증가한다. 즉 빙하 하부의 밀도가 표층의 밀도보다 큰 것이다. ⑤ 표층에 눈이 계속 쌓이면서 하부에 얼음이 형성되므로 100m 지점의 얼음이 50m 지점보다 먼저 형성된 것이다.

[44-46] 사회, '여론 조사 공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지문해설 : 이 글은 선거 기간 동안 여론 조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여론 조사 공표 금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론 조사의 공표 결과가 선거에 부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과 아직까지 공정한 여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여론 조사 공표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과 여론 조사 결과 공표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논거로 삼고 있다.

[주제] 선거 기간 중 여론 조사 공표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

44. 추론적 사고(논지의 도식화)

정답 해설 : 이 글은 선거 기간 중 여론 조사 공표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을 다루고 있다. 여론 조사 공표 금지를 찬성하는 사람들(A)은 여론 조사 공표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거(a)와 여론 조사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논거(b)를 들고 있다. 이에 반해 여론 조사 공표 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B)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거(c)와 함께 여론 조사 공표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찬성론자들의 논거(a)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가장 잘 도식화한 것은 ⑤이다. [답] ⑤

45.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 해설 :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되었듯이 선거 기간 내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 기간이 과거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표 금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알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언론 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알 권리를 대행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현행 선거법이 여론 조사 공표를 금지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여론 조사 결과 공표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알 권리가 정보와 사상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46. 비판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정답 해설 : ‘밴드왜건 효과’는 지지도가 높은 후보 쪽으로 표심이 이동하는 것이고, ‘열세자 효과’는 동정심이 발동하여 열세에 있는 후보자 쪽으로 표심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보기>에서 박수철 후보는 5차 조사에서 지지율이 11.1%로 최하위였으나 최종 득표율이 29.1%로 대폭 상승하며 2위를 했다. 이것은 열세자인 박수철 후보에 대한 투표자의 동정심이 득표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열세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영희 후보는 지지도가 가장 높은 후보가 아니었고, 5차 조사에서 지지율이 29.9%였으나 최종 득표율이 28.9%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밴드왜건 효과’를 본 것은 아니다. ③ 2차 조사에서 지지율이 2위였던 김민수 후보가 3차 조사에서 1위가 된 것으로 보아 ‘밴드왜건 효과’보다는 ‘열세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3차 조사 때보다 4차 조사 때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박수철 후보는 ‘열세자 효과’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5차 조사 때 2위였던 이영희 후보는 최종 득표율이 지지율보다 하락했고, 1위인 김민수 후보는 지지율보다 최종 득표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김민수 후보가 ‘밴드왜건 효과’를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7-50] 현대소설, 오상원, ‘모반(謀叛)’

작품해설 : 좌우익의 혈투와 여러 정당의 난립 속에서 이해득실을 달리 하는 단체와 집단들의 각축이 치열하던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기를 배경으로 하여, 한 테러리스트가 비정한 조직의 생리와 휴머니티 사이에서 인간적 갈등을 겪는 모습을 그린 수작이다. 아직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혼란한 시기에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부정적 세태를 고발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비밀결사 조직의 지령을 수행하는 동안 벌어진 어머니의 외로운 죽음으로 인해 주인공이 겪는 갈등과 번민, 그리고 조직 활동의 결과로 인한 죄 없는 한 청년과 그 가족의 참담한 희생, 결국은 조직의 폭력성과 비인간성에 회의를 느끼고 조직을 이탈하는 주인공의 모습 등에서 당대의 시대적·사회적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 문학의 시대 정신을 읽어 낼 수 있다.

[주제] 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되는 조직의 폭력성과 비윤리성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함

47.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 나타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작중의 주인공을 가리키는 호칭이 ‘그’로 되어 있다. 결국 이 글은 시종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날 밤’과 ‘며칠 전’의 장면에서 서술자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지금’(1)의 공간적 배경은 거리의 가로수 아래이고, ‘지금’(2)의 공간적 배경은 어머니가 누워 있는 방 안이다. ② ‘그날 밤’은 2개월 전으로 거사가 계획되었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어머니가 숨져 가고 있었다고 했으므로 어머니가 숨져 가고 있는 순간인 ‘지금’(2)와 동일한 시간적 배경임을 알 수 있다. ④ 주인공이 ‘지금’(1)의 시간을 기준으로 2개월 전의 ‘그날 밤’[=‘지금’(2)]을 회상하고 있는 중에, 그 때보다도 ‘며칠 전’의 일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며칠 전’이 가장 먼저임을 알 수 있다. <보기>의 시간을 실제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며칠 전’→‘그날 밤’, ‘지금’(2)→‘다음날’→‘지금’(1)이다.

48. 추론적 사고(소재의 서사적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보기>의 설명 중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는 매개’, ‘동시성과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 ‘현대소설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하는 장치’ 등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소재는 ㉠~㉣ 중에서는 ‘신문’밖에 없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조국’이나 ‘클랙슨 소리’는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 및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는 매개’와 거리가 멀다.

49.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의 앞부분에서는 외부 사물의 묘사로 인물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암시하고 있으며, [A]의 끝부분에서는 약 이 개월 전의 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해 주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A]에서는 ㉢처럼 개념적인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직접 피력하는 표현을 찾을 수 없으며, ㉣와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도 찾을 수 없다.

50. 추론적 사고(대화의 내용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C]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제 할 일’을 더 중요시하는 데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제 할 일’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② [B]에서 ‘비밀결사’ 조직의 동료는 조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를 압박하고 있다. ⑤ [B]에서는 비밀결사 조직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C]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타나는데, ‘그’는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